

통일을 말하다

먼저 온 통일

희망을 꿈꾸다

소식을 전하다

즐거움을 만나다

공감을 나누다



APEC, G20 정상회의와 통일외교 추진방향

얼마전 중국 베이징에서는 APEC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어 미얀마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호주에서 G20회의가 열렸다. 주로 경제적 이슈를 주제로 다루었던 회의였지만, 다자회의 속에서 다양한 양자정상회담들이 열렸으며...



남북당국자간 대화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북한이탈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직장 만들어줄 것



우리 학교 최고! 대외외교 북한인권 동아리 '투포원'



제13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개최

통일을 말하다

① ② ③ ④

포커스①

APEC, G20 정상회의와 통일외교 추진방향

먼저 온 통일

①

여객동무하기사업 취업지원사례
북한이탈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직장 만들어줄 것



통일시대



웹진다운로드



지나호보기



얼마전 중국 베이징에서는 APEC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어 미얀마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호주에서 G20회의가 열렸다. 주로 경제적 이슈를 주제로 다루었던 회의였지만, 다자회의 속에서 다양한 ...

+ 더보기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한 탈북 남성은 남한에 온 지 7년됐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는 일곱살이라고 말한다. 정신연령이 아닌 남한사회적응 연령인 것이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고 ...

+ 더보기

희망을 꿈꾸다

① ② ③

또 다른 시선

"남북통일과 북한인권개선 위해 피스바이크 참가했어요!"



소식을 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한미평화통일포럼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남북통일은 인권통일' 강조



웹툰

도시남의 아침을 깨우는 글로벌 전통 프랜차이즈 '다산(DASAN)'



동영상

"평화통일창"
<2014년도 3차 정책건의>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646km에 이르는 길을 9일간 자전거로 종주하고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아메타이 알론소를 비롯한 2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의 순간을 맞았다 ...

+ 더보기

즐거움을 만나다

①②

통일레시피

바다 향 가득한 '황해도 굴 김치밥'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즐겨먹는 굴김치밥은 연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굴과 질 좋은 쌀, 김치 그리고 참기를 양념장을 곁들여 먹었는데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소박하며 음식에 기교를 부리거나 화려하지 ...

+ 더보기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

+ 더보기

공감을 나누다

①

'생활속에서 발견한 통일' 당선작
북한음식 녹두전을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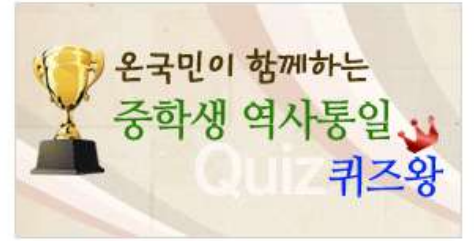


근무 중인 학교에서 통일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북한 음식인 녹두전도 만들고 통일동산도 조성해보았어요. '우리의 소원 통일'을 손글씨로 적어보았습니다 ...

+ 더보기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얼마 전 중국 베이징에서는 APEC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어 미얀마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호주에서 G20 회의가 열렸다. 주로 경제적 이슈를 주제로 다루었던 회의였지만, 다자회의 속에서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들이 열렸으며, 다각적인 자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외교전이 치열했던 회의들이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중국이 자국중심의 질서 구축에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APEC 회의에서 중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타당성 여부 조사실시는 미국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파트너십(TPP)에 대응하는 구상을 내놓음으로써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해당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안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더 폭넓고 가입국 수가 많은 FTAAP를 제안한 것이다.

과거 중국은 2007년 후진타오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맞물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원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을 글로벌파워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이와 같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7th ASEAN PLUS THREE SUMMIT

Nay Pyi Taw, Myanmar, 13 November 2014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등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와는 다르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APEC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중국은 미국의 브레튼우즈 체제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즉, 과거 후진타오 시기 중국이 미국중심의 체제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미국과의 등등한 관계를 요구했다면, 현재 시진핑은 자국중심의 체제를 구축하여 틀메이커로서 미국과 진정으로 등등해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FTAAP제안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APEC회담에서 주목할 것은 중일 정상회담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국과 공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중일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변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4개항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에 임하였는데, 중요부분은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문제에 있어 각기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즉,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일본의 양보를 통해 중일관계가 복원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에 열린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회담당일과 이후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다. 당일 시진핑 주석의 찌푸린 얼굴과 함께, 회담 이후 중국-일본 각국의 반응은 중일관계 회복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암시해주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영토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이 센카쿠열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언급을 하여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자아냈다.

이후 한국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2012년 이후 2년여 간 중단되어왔던 3국 정상회담을 재차 제안하였다.

표면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은 중일정상회담으로 외교적 고립을 맞이한 한국이 한일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한중일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균형외교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일본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일본은 반한국(反韓國) 로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어 있고, 한일관계에 일본은 적극적이거나 한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로비로 인해 한미관계가 꺾고 어려워지고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15일 오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경제성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과 공조하여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 역시 중요하다. 아시아재균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일 3각공조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에게,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에게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시켜줄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과 공조하여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 역시 중요하다. 아시아재균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일 3각공조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에게,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문제가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해질 것이다.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에게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시켜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및 정상회담을 우리외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미국을 의식한 것인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통해 대중국 레버리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외교적인 협력이 있어야 통일로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미·중 양국과의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외교전략은 통일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는 독일과 같지 않아 패전국 지위의 변경 시 주변국들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외교적인 협력이 있어야 통일로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정전협정 상에 있는 남북한 양국이 통일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정전협정 서명국들은 통일이 정전상태의 변경이라는 논리로 한반도 상황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중 양국과의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청와대>



남북당국자간 대화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이기동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모든 정책에는 상대가 있고, 정책 상대와의 관계가 신뢰에 기초하면 신뢰구조이고 그 반대면 불신구조다. 불신구조는 항상 상대방의 배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먼저 배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형성한다. 또한 불신구조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행동에 상응하는 행동을 정하도록 만든다. 그러다보니 관계는 단절과 지속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유형을 보인다. 한마디로 정책 대상자와의 관계 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 과정과 결과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정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불신구조를 신뢰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독일통일은 인권의 승리, 남북통일은 인권통일

북한은 대북정책의 상대이자 통일정책의 대상이다.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불신구조를 신뢰구조로 전환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관계 구조전환의 과정에서 일방성은 금물이다. 오히려 불신구조를 고착시킬 뿐이다. 쌍방이 자주 만나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점차 신뢰가 축적된다. 만남과 대화는 남북한 신뢰형성의 필수조건인 셈이다. 문제는 만났으나 진솔한 대화가 없고 대화를 했으나 기약이 없고 약속은 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상들이 남북관계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만남—대화—약속—이행의 사이클이 악순환하고 파행—답보—교착—역행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역설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합의 이행 제도화의 미흡에서 찾는다.

지난 2월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상대방이 약속된 규칙(제도)이 정한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해진다. 둘째, 예측 가능성의 증진은 쌍방 간의 신뢰성을 확장시킨다.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관계의 파행을 막게 된다. 셋째, 신뢰성의 확장은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신뢰가 관계진전의 관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제도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상대방이 약속된 규칙(제도)이 정한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해진다. 둘째, 예측 가능성의 증진은 쌍방 간의 신뢰성을 확장시킨다.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관계의 파행을 막게 된다. 셋째, 신뢰성의 확장은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신뢰가 관계진전의 관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제도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관계의 퇴행과 가역성이 상존하는 불신구조 속에서 비정부 차원의 대화보다는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당국자간의 대화가 사안에 따라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당국자간 대화의 제도화는 순조로운 합의 이행과 직결된다. 합의 도출에 이르더라도 합의가 불이행될 경우 대화가 단절된다. 10.4선언이 그랬고 북-미간 2.29합의가 그랬다. 반면, 합의 이행이 순조로울 경우, 대화는 탄력을 받는다. 관계 진전에 따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6.15선언과 9.19 공동성명 초기이행단계(2.13합의)가 그랬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최룡해 노동당 비서(왼쪽부터),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등과 환담하고 있다.

지난 10월초 김정은 정권의 핵심실세 3명이 인천을 다녀가면서 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를 약속하였다. 지난 8월 11일 남북고위급접촉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접촉 제의에 대한 화답이었다. 후속조치로 남측은 10월 30일 고위급접촉 개최를 제의(10.13)했으나 북측이 전단지 살포 중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측의 태도 변화(전단지 살포 중단)와 연계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약속과 이행의 중간 사이에 다양한 파행 변수들과 요인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돌발적으로 등장한다. 고위급회담의 정례화와 같은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파행 변수들과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만하며 지속 가능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첩경이다. 아울러 고위급회담의 정례화와 같은 만남과 대화의 제도화는 그 자체로서 의미도 심장하지만 순조로운 합의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의 이행 자체가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신뢰가 쌓이고 오해를 줄이며 상대방의 애로를 이해하게 되어 결국 합의 이행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도움이 된다.

남북관계 제도화는 대북정책만이 아니라 통일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선 대북정책을 통해 축적된 남북관계 제도화는 향후 제도적 차원에서의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 다음으로 남북관계 제도화는 통일비용 감소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남북관계 제도화는 대북정책만이 아니라 통일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선 대북정책을 통해 축적된 남북관계 제도화는 향후 제도적 차원에서의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 고위급회담 정례화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 남북총리회담, 그리고 남북국회회담 정례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제도화는 통일비용 감소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예컨대,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제 정비는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당사자 지위 인정 논란이 벌어질 경우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밝혔다. 통일은 한반도 경제의 대도약 기회임을 천명함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3월 28일 통일대박론의 초기 이행조치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을 실현하고 뒷받침할 목적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하였다.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남북관계의 정상적 개선 및 진전과 함께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의 방향이 남북관계 제도화에 맞춰지고, 그것이 통일기반 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도시남의 아침을 깨우는 글로벌 전통프랜차이즈 '다산(DASAN)'

이택중



서울커 같은 소리하고 있네!
누가 요즘 아메리카노 마셔!
촌스럽게 시리!

그러게 말이죠. 글로벌 통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그럼 녀들은 뭐 마시는데!?

'다산'의 전통차지! 아직도 몰라?
다산 정약용 선생을 모르나 봐!



금강산의 청정 물에다 남한 지역의 마케팅과 기술력으로 새롭게 탄생한 우리 전통차만 취급하는 '다산' 몰라? 전 세계 글로벌 체인점 수 1위, 별다방, 콩다방을 제치고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통일한국의 '다산'을 모른단 말이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헉!
그런 게 있었어?

외국에서도 다들 '다산'만 찾아서,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도 분점이 생겼잖아.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서 요즘은 외국에서도 다들 우리 전통차만 마시잖아. 아메리카노는 유행이 갔지.



물론 '다산'의 전통차지.
아, 어제 술 마셨더니 속 쓰려.
유자차 마시니 좀 살 것 같네.



통일한국이 만든 우리 전통차 프랜차이즈
'다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남한은 송년회(送年會), 북한은 망년회(忘年會)

북한노래 부르면 '촌놈',
남조선 춤과 노래 불러줘야 인기 '짱'

강원철 (위드유 사무국장)

2014년 마지막 달인 12월, 한해의 끝자락에 서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 싶다. 각종 행사와 모임 약속들로 빼곡히 채워진 다이어리를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처럼 '송년회' 행사와 모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한국사회의 송년문화가 그 원인이 아닐까 싶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30대를 대상으로 송년회 모임의 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가 '술자리'라 응답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송년모임들이 술자리로 시작해서 술자리고 끝나다 보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 먹고 마시는 송년에 대신 알찬 송년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가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싶다.



'먹고 마시면서 한해의 어려움을 잊는' 북한 망년회

남북한의 송년문화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것은 모임의 명칭이다. 남한에서는 한해를 보낸다는 의미로 '송년회(送年會)', 즉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 송년회로 불린다. 반면 북한은 한해를 잊는다는 뜻을 가진 '망년회(忘年會)'라고 부른다.

본래 망년(忘年)이란 말의 어원은 일본의 오랜 풍습을 가리키는 말로, 선달그믐께 친지들끼리 어울려 시간을 보내며 한해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모두 털거나 잊어버리자는 세시풍속 중 하나다. 따라서 한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라는 남한식 명칭인 '송년회'와 먹고 마시면서 한해를 잊어버린다는 뜻의 북한식 명칭 '망년회'는 그 뜻에서 확연히 다르다.

송년회 모임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남한에서는 송년회 날을 잡을 때 12월 중 가장 편한 날을 정해 그날에 행사를 갖는다. 심지어 11월 말에 송년모임을 잡는 곳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대부분 12월 말에 망년회를 가진다. 이유는 12월 24일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의 생일을 맞아 각 단체, 조직별로 '총성의 노래모임' 등 각종 국가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이 행사들을 마친 후에야 편안한 마음으로 망년회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에 12월 말로 망년회 날을 정할 수밖에 없다.





망년회는 대부분 개인집에서, 최근엔 식당 빌려 하기도



행사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남한은 연회장이 나 식당을 예약해 그곳에서 송년모임을 진행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직장, 단체 부서별로 개인 집을 정해 그곳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망년회 비용과 음식 준비는 각자의 몫이 된다. 망년회에 들어갈 총 비용을 n분에 1로 나눠 개인의 상황에 맞게 돈, 쌀, 고기, 술 등을 내야 한다. 최근 들어 돈을 좀 축적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서별로 들어가는 망년회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대도시들에서 남한처럼 식당을 빌려 망년회를 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남한에서 '송년회'하면 음주가무를 빼놓을 수 없듯이 북한도 비슷하다. 단지 남한에서는 술자리를 1차, 2차로 옮기면서 송년의 밤을 즐기지만 북한은 옮겨 다니면서 놀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밖에 없다. 준비한 음식을 안주 삼아 한 잔, 두 잔 술이 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춤과 노래로 이어지기 일쑤다. 전기가 공급이 될 때에는 녹음기를 켜놓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놀지만, 정전이 될 경우 미리 준비해 놓은 기타와 아코디언 연주를 반주로 노래와 춤을 즐긴다.



북한 망년회 문화를 바꿔놓은 남조선 노래와 춤

망년회 때 부르는 노래와 춤은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공장, 기업소 등에서 조직한 공식적인 '망년회' 자리에서는 간부들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노래와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물러일으키는 노래를 주로 부른다. 하지만 친구들과끼리 조직한 '망년회'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와 춤은 180도 다르다. 특히 10~20대들 경우 이런 자리에서 남조선 노래를 하고 남조선 식 춤을 춰줘야 '좀 놀 줄 아네'라는 소리를 듣고 여자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자리에서 북한 노래를 부른다면 친구들로부터 '촌놈'이라 놀림을 받게 되며, 심지어 다음 모임 때 부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최근 북한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남조선 노래와 춤은 젊은 층들의 모임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망년회 문화를 바꿔 놓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과 북의 송년문화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망년회 문화에는 그들의 힘들었던 일상의 삶이 그대로 배어 있다. 이날만큼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올해에 힘들었던 모든 것을 잊는 날로 인식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낙을 주는 유일한 날이 망년회인 셈이다.

송년의 달, 12월을 맞아 북한 주민들에게도 힘들었던 한 해를 잊는 '망년회'가 아닌 한 해를 되새기고,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송년회' 문화가 하루 빨리 자리 잡길 희망해본다. 더불어 남한에는 먹고 마시는 송년 대신 알찬 송년문화가 자리 잡아 부담스러운 모임이 아닌 즐겁고 의미 있는 송년모임이 되길 기대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직장 만들어줄 것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한 탈북 남성은 남한에 온 지 7년됐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는 일곱살이라고 말한다. 정신연령이 아닌 남한사회적응 연령인 것이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고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을 돕고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만나보았다.

취업지원사례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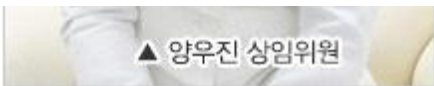
양우진 상임위원 | 서울중앙클리닉 대표원장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미희, 자기개발에도 열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남북한 주민간 등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먼저 온 통일’이 진짜 통일로 이어지도록 취업지원을 해보자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어요. 중구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더라도 일회성으로, 혹은 취업 후 금방 그만두고 나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자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무엇보다 이런 활동 과정에서 신변이 언론에 노출된다거나 홍보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인터뷰도 처음에는 고사 했었다).



병원 직원이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들을 통해 미희 씨의 근황을 물어보곤 했어요. 미희 씨는 남한에 온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한에 적응할 때까지 보금자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늘 슈퍼바이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미희 씨는 또래보다 자기 일에 대한 애착과 집중도가 매우 뛰어나서 착실하게 잘 적응해나가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회계분야에서 일했다는데, 한국과 북한은 세법도 다르고 용어도 거의 달라요. 여러 곳에 수소문해봤지만, 그 분야로 바로 취업시켜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희 씨는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회계학원에 다녔고 다행히 한 달 뒤면 그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요. 가능하다면 병원 내 회계업무 부서로 옮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양우진 상임위원

의료부문만 봐도 남북한간 용어차이가 꽤 커요. 문화분야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남북한이 직업 및 학술, 문화 등의 전문용어를 먼저 통합해야 통일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DMZ에 평화통일공원을 만들면 이런 동질성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미리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여기에 남북한 문화를 이미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취업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오래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법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이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남한에 와서 산다는 것은 장애우와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자기개발이 더 중요해요”

지난해 한국에 온 23살 박미희 씨(가명). 현재 중앙클리닉에서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고 있다. “원장님이나 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점은 없는데, 자신감을 갖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는 고객을 안내해드리는 일인데 북한말을 쓰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동료 직원과의 대화를 할 때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는 미희 씨. 예를 들어 북한말로 ‘따분하다’는 상대방이 부탁을 했는데 들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쓰는 말인데 ‘따분하긴 한데 못해주겠다’고 말하면 ‘심심해서 못해주겠다’는 뜻으로 남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미희 씨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동료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미희 씨는 “스스로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나에 따라서 동료분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 같은 북한이탈주민 동료들에게는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조언했다.



“처음에 남한에 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너무 돈에 얽매는 것 같아요.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더 알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길러지는 것 같아요.”

“미희 씨는 판단이 빠르고, 배우려는 욕심이 많아요”

홍혜경 부장은 미희 씨가 병원에 왔을 때, 며칠간 데리고다니며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쳤다. “인사는 하고 싶고 매우 적극적인 성격인데, 본인의 역량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 사람들도 다 사투리를 쓴다며 연연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제대로 표준말을 배우고 싶다면 앵커들의 말을 따라해 보라고 조언했는데, 미희 씨가 곧바로 CD를 사서 공부를 하고 스피킹연습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홍혜경 부장은 미희 씨가 지금은 업무적으로 일을 매우 잘 해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고객이 많이 기다릴 것 같으면 다른 접수처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대한 상황판단이 빠르고 유연하다고 말했다. 미희 씨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입도 뻥긋 못했는데, 부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바로 곁에서 항상 자세히 가르쳐주셨다”며 고마워했다.

한번 퇴사했지만 방향 후 재입사 허락, 동료간 소통 나아져

8년째 가평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2007년경 이호 씨(가명) 가족과도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이호 씨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형면허를 취득해 레미콘 트럭 운전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3년 전 면허를 취득해서 찾아왔기에 2012년부터 일을 시작해 1년 9개월 정도 함께 했는데, 작년 9월에 트럭 키를 반납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약 6개월여를 자리 잡지 못하고 고생하며 떠들다가 금년 봄 다시 찾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었어요.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기복 회장

40년간 북한의 배급사회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동료들간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한데다 아직까지 확실한 경제관념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면이 많지요. 나이도 적지 않지만 아직 자녀들이 어리거든요. 일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남한이라는 경쟁사회에서 걸도는 느낌이 남아있어 꾸준히 조언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작은 변화라면, 예전에는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곧잘 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내를 다 털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남한에서 통용되는 직업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취업을 시켜도 직접 가르쳐서 산업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한사회에 나오기 전에, 즉 하나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분들의 적성이나 특기별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직업교육을 시킨 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면 시행착오나 방향없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 예산 문제도 고려를 해야 겠지요. 가평군협의회 회장으로서, 보안협력위원장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북한이탈주민지원활동을 하겠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평통 취업지원단, 지역협의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고용희망 기업체 발굴



민주평통은 올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을 돕는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인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민주평통 취업지원단'을 발족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와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회장을 공동단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 '민주평통 취업지원단'은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취업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희망 기업체를 발굴해 취업을 알선하거나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민주평통 취업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협의회를 통해 취업지원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탈북민 구인 기업체 발굴을 확대하며 멘토링결연 등을 통해 취업 탈북민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 등 취업전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평통 취업지원단 단장 미니 인터뷰

황철주 단장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벤처기업수와 탈북자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올라 '벤처기업 1사가 1명씩 채용하는 캠페인'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 의식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서로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맞추길 바라는 취업이 아닌 서로의 의식을 맞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과 기업이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선적으로 가진 뒤, 취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취업지원단은 지속적으로 의식을 공유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시스템화 된다면 통일 준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기 단장

이노비즈협회는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약 1만7천여 개의 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기업에 탈북민 고용협조를 당부하거나 공문을 보냈고, 몇 개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70여년간 상이한 체제와 경제제도 하에서 살아온 남북한이기에 인식차를 극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기업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들의 직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투자에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비록 회사생활이 쉽지 않고 대우나 급여수준에 불만이 있더라도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꼭 필요한 덕목은 인내와 신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했을 때 경제적 혜택을 더 받는 방식으로 지원 정책을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단의 경우,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들이 잘 구성돼 있는 만큼 이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학교 최고! 대원외고 북한인권동아리 '투포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민관이 너는 학생이지? 그럼, 아임 어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 봐."
 "아임... 어... 스튜던트, 아임 어 스튜던트."
 "영호야, 너 진도가 꽤 늦다? 지금 너네 학교 분수 배우고 있지 않아?"
 "맞아요, 저 지금 1단원 곱셈 하는데 학교에선 4단원 분수 해요. 아, 정말 싫다."

♥ 탈북청소년 대상 공부방 운영하며 멘토가 되어준 '투포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북한인권동아리 'Two for One(이하 투포원)' 학생들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어느 교회에 달린 작은 방에서 열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혹은 그 친구들이다. 투포원 동아리 회원들은 A, B조로 나누어 이곳과 일원동 공부방에서 2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공부 뿐 아니라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거나 고민을 상담해주는 멘토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축구도 하며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진 동아리 ‘투포원’. 창립 초기 회원이 12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0여 명으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인기 동아리가 됐다. 2006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와 인연을 맺은 이후, 공부방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으며, 북한인권관련 세미나와 포럼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이슈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진전과 음악회도 열고 있다. 2013년 발의된 ‘북한청소년인도지원법’이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활동을 지원했으며, 올해 열린 모의 ICC대회에서 북한인권관련 스피치로 1등을 차지해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대원외고 학생들이 실제로 탈북청소년을 남한으로 데려온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조금만 기다려’가 개봉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중국에서 은신중인 탈북청소년을 남한으로 데려오다!

다큐멘터리영화 ‘조금만 기다려’는 투포원 회원인 김희영(당시 2학년), 차유진(당시 2학년), 오예선 학생(당시 1학년)이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갔던 열일곱살 옥선이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2년여의 과정을 담고 있다.

“투포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도 알리고 이들의 구출 활동에 사용할 기금을 모으기 위해 교내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여는데, 이 기금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을 작은 캠퍼스로 촬영했어요. 그게 ‘조금만 기다려’라는 다큐멘터리의 시작이었구요.”

희영이는 옥선이와의 첫 만남이 ‘매우 드라마틱하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2012년 북한 국경에 답사를 갔다가 중국 지린성 연길의 안전가옥에 숨어있는 옥선이와 만났고, 옥선이에게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꽃제비’의 실체에 대해 전해 듣게 됐다. 당시 옥선이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했고 자기소개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또래였기 때문인지 투포원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면서 차츰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었다.

이후 투포원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옥선이를 구출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희영이는 “포스터를 붙이는 것부터 장소 섭외까지 무엇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동아리 회원들 모두가 고생한 끝에 마침내 비용마련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옥선이는 마침내 올 초 한국 땅을 밟았다.

현재 희영이와 유진이는 각각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뒤 꿈을 향해 정진하고 있고, 예선이는 고3 수험생이면서도 투포원 3학년 회장을 맡아 후배들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옥선이는 안성에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중이며 대학 진학 준비와 동시에 제빵사자격증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투포원 재학생들과의 통일 및 북한인권 토크!  

공부방 활동

오예선(3학년) = 처음 공부방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모두 참여했고, 어른들은 영어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도 있어요. 일반인들의 경우, 굶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던 게 생각나요.

이수지(2학년) = 연희(가명)라는 아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1분도 가만히 못 있고 굉장히 산만했어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먼저 학교생활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더니, 친해질 수 있었고 나중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김지후(2학년) = 매주 주말에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다보면, 생각의 범위도 넓어지고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오예선

통일과 나

예선 = 통일 후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보다 먼저,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해 세미나나 워크숍, 이벤트 등을 많이 열어서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일이 저희 세대에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많은 혜택과 커다란 힘을 가져다 줄 거라고 봐요.

수지 =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며 반대하거나 관심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성장,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통일이야말로 대박인거죠.

지후 = 현재 통일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우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이 좋은 예지요. 우리 학생들의 활동만 놓고 보면, 자선공연 등을 열 때 통일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수지

나의 꿈 나의 미래

예선 = 기자가 되고 싶어요. 불평등, 인권유린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글로 현실을 알리고 싶어요. 미디어의 힘은 강하니까요.

수지 = 제 꿈은 외교관이예요. 그래서 반크 활동도 하고 있고 독도문제, 통일-국가안보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이런 국내문제 외에도 기아나 환경, 여성 및 아동인권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래요.

지후 = 최근 중국 지린성 지역에 다녀왔는데, 강 건너편으로 흐릿하게 북한이 보였지만 직접 북한주민과 만나서 얘기 한 번 할 수 없는 현실이 슬펐어요. 외교관이 되면 북한에 한국대사관을 설립해서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 김지후

<글. 사진 / 기자회견>

“남북한 융합 주도할 경제학자 될 것”

버나드칼리지에 재학중인 김희영입니다. 저는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와 많은 기업 본사들이 위치한 뉴욕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고사 기간과 에세이제출 때는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여유가 생기면 친구들과 주말에 쇼핑을 가거나 맨하탄의 숨은 맛집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혼자 타국으로 팔려와 온갖 고초를 겪었던 옥선이를 생각하면 약해지는 마음도 다시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고등학교 때 투포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학을 부전공하고 싶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아요.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경제학을 더욱 심도 있게 배워 나중에 남북의 융합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INK에서 북한인권관련 활동, 졸업후엔 ICC에서 일하고 싶어”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차유진입니다.

이번 학기는 정치학 수업과 인권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 수업은 깊은 생각을 요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숙제하는 날이 많은데,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재밌어요. 대학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서, CU LINK에 가입해 북한관련 다큐멘터리 상영, 북한인권관련 포럼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만난 친구들은 아무래도 남북통일

보다는 북한 정권의 군사도발에 강한 반감을 갖거나 북한지도자의 행동을 코믹컬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면 안보에 위협을 자주 느끼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통일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곤 하는데, 보통 가슴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심으로 통일을 이해하고 원할 수 있는 건 한국인들만이 아닐까 싶어요.

전 북한인권법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알게 됐어요.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는 정말 이상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기관 같아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전 아마 정치학과 인권을 전공할 것 같아요. 콜럼비아대학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인권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였거든요. 인권 수업을 들으면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646km에 이르는 길을 9일간 자전거로 종주하고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아메타이 알론소를 비롯한 2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의 순간을 맞았다.

“힘든 종주에 성공하고 나니, 정말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베리 익사이팅 익스피리언스!”

알바니아에도 잘 알려진 K-팝과 한국드라마

지난 8월 '2014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PEACE BIKE 2014, 이하 피스바이크)'에 참가한 알바니아 유학생 아메타이 알론소는 알바니아와 위도가 같아 사계절도 있고 산, 호수 등 자연경관이 비슷한 한국이 마치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문화는 '음식 접대'다.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음식이 빠지지 않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초대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매운 음식에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가끔 반말을 써서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이제 어려운 단어를 빼곤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저 멀리 유럽의 동쪽, 알바니아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알론소는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과 한국 드라마가 잘 알려져 있고 아이돌그룹, 케이팝, 한국 댄스 등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인은 즐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알바니아인들이 많다고.



남한의 청년들과 세계인에게 '남북통일 필요성' 알리고 싶어

알론소는 평소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통일의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원래 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통일이 되면 일정부분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을 꺼린다는 것.



이번에 피스바이크 행사에 참여한 것도 바로 한국의 젊은 세대와 북한주민,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왜 통일해야 하는지 되묻는 사람들에게 남북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같은 외국인들도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북한인권문제를 알려려는 목적도 있어요. 세계인들은 북한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이라면 꼭 권하고 싶은 자전거 종주

9일간의 자전거 통일대장경 중 가장 힘든 코스가 어디였는지 묻자, 그는 충북 괴산군-문경새재간 5km 오르막길인 '이화령' 이야기를 꺼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1km, 2km, 3km... 정말 가도 가도 끝없이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쯤 이 길이 끝날까,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다음날 여기저기 몸이 아팠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더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자전거 종주를 통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여러 도시, 장소를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차를 타고 다녔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알론소는 어떤 목적이나 이슈를 떠나 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꼭 해보아야 할 경험이라며, 자전거 종주를 적극 추천했다.



9일간의 대장경에서 얻은 또 하나의 수확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2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동료들과 공감을 나눴다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와 누적된 피로 때문에 처음에는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다같이 고생하면서 '너 아파?' 하면 '나도 아파'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 음식 또한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는 알론소.

“어떤 식당엘 가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좋았어요. 하루 종일 페달을 밟느라 무지 배가 고팠거든요. 하하”





남북통일 “맥시멈 10년, 미니멈 5년”

알론소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 통일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맥시멈 10년, 미니멈 5년(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유럽에서 살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경제가 부강해질 수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보다는 좀 더 소프트할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주민 역시 아직은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진 않지만 언젠가는 이런 매체들을 통해 현실을 깨달을 거구요.”

알론소는 알바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이 거의 공산국가였지만, 독일이 통일됐고 소련이 없어졌으며 알바니아도 민주주의국가가 된 것처럼 북한도 이런 흐름을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졸업 후 계획에 대해, 알론소는 모국인 알바니아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알바니아는 한국과 비슷하게 수많은 외침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동서간 종교와 문명이 엇갈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화약고’로 불려왔을 정도.

“남북한 분단과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알바니아에도 디비전(코소보의 독립에 대한 세르비아의 불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알바니아 사람들은 한국의 통일 열망을 잘 알아요. 저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문제를 극복하고 알바니아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글/사진. 기자희〉



남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은
의사?

얼마 전 대입 수능학능력시험이 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남한에 오면 주로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기 때문에 수능에 매달리는 남한 학생들의 모습이 낯설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교 선택은 장래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도, 부모도 신경이 곤두서기는 마찬가지. 이번호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진로 이야기와 이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남한졸임말’, 그리고 북한의 김장풍경에 대해 소개해본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내 딸은 의사로~’

예전에 함경북도 산간지역에서 온 할머니, 아주머니 몇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만, 주로 식량을 관할하는 량정사업소, 생활필수품을 배급하는 상업관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었다.

“어쨌거나 먹는 것이 최우선이니까요. 량정사업소나 상업관리소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은 주고받아요. 안면치기 하는(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해먹는) 거지요.”

하지만 탈북대학생들은 의외로 의사나 약사 직업이 인기가 많다고 했다.

“남한에서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의사는 선망의 직업이에요. 무료진료가 원칙이지만 환자들이 뇌물을 고이기(뇌물을주기) 때문에 얻는 것이 많고, 약 들어오는 거를 암시장에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탈북여대생 A씨는 현재 회계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의대 진학이 가능한 학과로 편입하기를 원하는 엄마와 최근 갈등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엄마의 꿈은 딸을 의사로 키우는 것이라고.



“북한에서 공부도 잘하고 특히 수학을 꽤 잘했는데, 여긴 용어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 남한의 ‘등호(=)’라는 말은 북한에서 ‘갈기’라고 부른다. 함수나 방정식은 같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외래어는 없다. 영어는 교사들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가르치다보니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북한 학생들이 공부를 별로 안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도시학교의 교육은 ‘완전히 스파르타식’이란다.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다보니 북한 아이들도 깜뿌라찌(컨닝)를 한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작은 메모지 등에 미리 답을 적어두는 것을 깜뿌라찌라고 한다.

A양은 남한의 시험 방식이 쉽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전부 서술형인데 남한에는 4지선다 문제가 많아서 좋다는 것.

“시험 답안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침에 왔을 땐, 잘 찍기만 하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하나,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 영어, 외래어보다 더 어려운 남한말은 바로 ‘줄임말’

A씨는 남한의 수험생도, 대학입시 문화도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거의 잠도 안자고, 집에서는 수능생을 왕처럼 떠받들고요.”

야간자율학습, ‘야자’라는 단어도 생소했다.

“고등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녁에 집으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야, 너 야자 안하고 어디 갔니?’ 하시기에 ‘집인데요? 야자가 뭐예요?’하고 물었죠. 야간에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게 야간자율학습이고 그걸 줄여서 야자라고 부른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줄임말을 외래어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남자 탈북대학생 B씨는 ‘팀플’ ‘단톡방’과 같은 줄임말에 당황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과제를 하는데 1학년 때 처음으로 팀플을 했어요. 팀프로젝트라는 말을 팀플이라고 하더라고요. 팀을 이뤄서 과제를 해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형, 나중에 단톡방에 초대할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이 뭔데?’ 했더니 단체 카톡방(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단체 대화방)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남한 말 속에 숨은 영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B씨는 학과 친구들에게 커피를 사서 돌리기로 했다.

“카페 갔는데 ‘포인트 적립시켜드릴까요?’라고 묻는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몰라서 제가 ‘네? 네?’하니까 한번 짚어보더니 그냥 카드 결제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하는데 말투 때문에 저를 업신여길까봐(무시할까봐) 묻지를 못하겠어요.”

☐ 북한의 김장 풍경, 땅에 묻어둔 김치맛 잊을 수 없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김장철이 다가온다. 이들 탈북대학생들은 김장날을 '잔칫날, 잘 먹는 날'로 기억했다. 김장을 하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

“김장 한 번 하면 난리 나죠. 여기는 절임배추를 쓰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수돗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강에 가서 배추를 씻어와야 해요. 추운데 구루마에다 배추 싹고 멀리 강가에 나가서 배추 씻는 게 장난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드문드문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와야 수돗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쓸 만큼 받아 뒀야 한다. 부유한 집은 지하수를 끄는 ‘펌프’가 있기 때문에 강이 너무 멀리 있는 동네사람들은 펌프가 있는 집에 출서서 기다린다고 한다.

양념재료의 핵심인 고추는 절구에 찧기도 하고, 방앗간에서 발을 이용하는 방아 도구로 뿔아서 공수해 온다. 젓갈은 못 넣거나 대부분 멸치젓을 넣는데 잘 사는 집 김치는 젓갈 재료부터 다르다.

“명태김치 하는 집은 완전히 잘 사는 집이에요. 명태김치 진짜 맛있거든요. 돼지고기김치 있고 닭고기 김치도 있어요. 남한 식당에 가면 백김치도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고춧가루 없는 집이나 백김치를 담그기 때문에 남한에서 그걸 왜 먹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김장을 하고 나면 남한에서는 돼지고기 수육을 갖 버무린 김치에 싸먹는데, 북한에서는 두부국과 흰 쌀밥을 먹는다고 한다. 두부국이란 된장 풀어놓은 물에 두부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남한의 된장찌개와 비슷하다. “항상 옥수수밥을 먹다가 그날은 힘들게 일했으니까 흰밥을 먹는 거예요. 아빠는 농택(집에서 담근 소주)이 한 잔씩 하시고요.”

함경북도와 같이 추운 지방에서는 11월초쯤 김장을 한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르듯 겨우내 먹을 김장을 마쳤을 것이다. 정성스럽게 버무려진 김치는 땅속 ‘김치움’에서 한창 감칠맛나는 발효를 시작하고 있을 것 같다.

“여기는 김치냉장고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땅을 판 뒤에 이~따만한 독을 넣고 김치를 보관해요. 김장김치는 묵혔다가 여름에도 먹기 때문에 잘 사는 집은 여러 개 묻고요. 그런데 땅에서 꺼낸 김치는 땅맛이란 게 나요. 한겨울에 손 호호 불면서 김치움에 가서 김치를 막 꺼내면 그 맛이 진짜~ 좋거든요.”

〈글. 기자희〉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의 첫걸음입니다(현경대 수석부의장 기조연설 중).”

북한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1월 13일(목) 미국 워싱턴DC 소재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을 주제로 한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철 미주 부의장과 황원균 워싱턴협의회장,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전·현직 관료와 전문가, 정치인, 정책담당자, 주류사회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안보환경과 국제관계가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었지만 한미동맹은 건재하다"면서 이는 "양국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확고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소개하며, "당시 제안은 북한의 민생과 경제기반을 근대화 전 단계까지 끌어 올려 충격 없는 통일을 모색하겠다는 진정어린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 브라운 “통일은 미국에게도 큰 혜택을 가져올 것”

이번 한미 평화통일포럼은 크게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미 공조(1세션),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한 전략적 접근(2세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미국측 전문가들과 한용섭 국방대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등 한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협력할 분야는 다양하다”면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회담을 재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국은 통일 전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통일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윌리엄 브라운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은 “통일은 미국에게도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현대적인 통화 및 은행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크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비용절감을 달성하고 그렇게 절감한 비용을 생산적인 투자에 세심하게 할당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동북아를 위한 ‘대박’이 되는 것을 막을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마지막 대안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이 방법은 북한 정권이 그 국민을 통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한 노동미사일로 일본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만큼 위험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국과 한국은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2014 미주지역 청년컨퍼런스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1월 20(목)~22(토)일 캐나다 밴쿠버 웨라톤 길포드 호텔에서 '2014 한인 차세대 컨퍼런스 (Korean-Canadian Young Generation Conference)'를 개최했다. '통일 - 우리의 희망,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통일한국의 주역으로서 청년 자문위원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평통 캐나다 밴쿠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4 한인 차세대 컨퍼런스'는 미국 및 캐나다 20개 협의회, 22개국 50세 이하 청년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소통에 중점을 두기 위해 통일관련 주제 에세이를 사전에 제출받아 우수작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 김기철 미주부의장, 서병길 밴쿠버협의회장을 비롯해 미주지역 협의회장 및 청년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첫째 날인 20일에는 '해외 주류사회에서 차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서병길 밴쿠버협의회장과 최진학 토론토협의회장의 특강에 이어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날에는 본격적인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통일 - 우리의 희망,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서병길 밴쿠버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이기천 주밴쿠버 총영사의 환영사, 배리 데블린 캐나다 보수당 하원의원 및 김기철 미주부의장의 축사가 진행됐고, 이어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스투어트 풍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자문위원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협의회 청년활동 사례 및 활동계획이 발표됐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



▲스튜어트 풍 자문위원



분임토의는 통일과정에서 남북간 신뢰 형성 방안과 차세대 역사통일교육의 활성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강화, 청년의 통일의식·통일운동 참여 제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끝으로 마지막 날인 22 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와 통일에세이 시상식 등이 있었다.

한편 서병길 평통 밴쿠버협의회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 일수록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점 통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는 차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4년 1~6차 직능별 정책회의 성료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직능별 논의로 정책건의 기반 마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1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1박2일간 대전유성호텔에서 '2014년 제6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18개 사회 각 분야별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정책건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 회의는 지난 6월 2일 1차회의에 이어 총 6차례 개최됐으며 약 77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발걸음은 북핵과 북한인권문제 해결”

이번 회의는 박성배 대전부의장의 환영사와 서강대 김영수 교수의 특강, 현경대수석부의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즉석 온라인 여론조사, 분임별 정책회의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SNS참여강좌와 분임별 정책회의의 결과 발표 등이 있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 ▶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발표내용과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발걸음은 북핵과 북



▲박성배 대전부의장

한인권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에 따른 효과와 비전 등을 설명하며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가장 큰 역할, 생활속에서 통일문제를 현실화시키는 일들을 자문위원들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세계 1등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문위원들이 통일이 왜 대박인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박성배 대전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제6차 직능별 정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 온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해 많은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 만들어 가길”

이날 김영수 교수는 '최근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우리가 그리는 통일구상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수 교수는 "남북관계는 북한 변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목표와 의도를 정확히 보고 통일로 가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統一)은 통이(統理)이므로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는 통일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다른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특강을 마쳤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한편, 분임토의 전 잠시 온라인 설문과 사행시 작성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설문은 핸드폰을 통해 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즉석에서 참여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우리사회 통일준비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 사회와 함께 각 분야별로 활발한 토론 이어가

각 직능별 분임토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이 해당분야별로 열린 토의를 진행했다. △법조·노동직능분임의 경우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종교·인권직능분임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언론·정보통신분임은 '남북간 언론, 정보통신 분야 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회차부터 논의된 위원들의 주요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 : 통일대박담론 공감대 확산 방안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공유 ▲교육 활성화를 통한 범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 ▲해외 청년세대를 위한 홍보 강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하고 친근한 접근 모색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일 대박' 논리 개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물질적 인프라 구축 ▲생활밀착형 통일논의 활성화 등

행정 : 남북한 주민 동질성 회복 방안

▲남북한 문화 교류 문제를 정치적 사안과 별개 추진 ▲남북문화교류와 협력 관련 법 제정 및 전담 조직 설립 ▲남북한의 효율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우선 접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상호 협력 및 대응 ▲국제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형성 ▲공동학술회의 개최 ▲북한 관광교류 재개 검토 등

농수산임 : 남북한 농수산임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대북 쌀 지원 재개 검토 ▲남북 합작 축산단지 조성 ▲북한 실정에 맞는 농업 및 축산 기술 제공 ▲지자체 간의 농업지원 및 교류 방안 ▲북한 기후에 맞는 종자 지원 방안 ▲북한 산림녹화 지원 방안 ▲삼림병해충 방제사업의 남북 공동 진행 ▲북한 선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등

법조·노동 :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

▲전 국민적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제도의 정비 ▲남북 간 관계 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통일 대비 관련 법제 정비 및 기존 법제의 실효성 증대 ▲유관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전반의 법제 정비를 통한 접근 모색 등

종교·인권 :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북한 주민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실시 등

언론·정보통신 : 남북 간 언론·정보통신분야 교류 방안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북한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 분야의 민간 교류 확대 ▲북한 주민들의 후생발전에 기여 ▲통일 후 균형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 측면에서 교류 실시 ▲북한 지역 내 영상물 제작 여건에 대한 법제적 정비 ▲남북한 방송 합작 혹은 공동제작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자문위원 소감

오늘 행사 이렇게 봤어요!



윤오현 자문위원(송파구협의회장) = 위촉장만 받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통일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로서, 의장이신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 한사람 한사람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역량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태 자문위원(계룡시 협의회 간사) = '통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족대통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통합을 하기 전에 북한의 여러 상황이나 우리 경제여건 등에 대한 고려, 국민적인 합의 도출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계룡시협의회에서는 이번에 고등학교 통일동아리를 처음 만들었는데, 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순수한 가치관들이 상향식으로 전달되면 정책수립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병권 자문위원(동작구) =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통일 지식을 쌓은 후, 일상속에서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알려서 통일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탈북청소년 건강검진 등에 참여하면서 어릴적 영양결핍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는 어린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인권문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오현 자문위원



신용태 자문위원



강병권 자문위원

분임사회 소감

“한가지라도 더... 분임토의 열기 뜨거워”

법조·노동 / 차승주 교수(춘천교대)

2~6차까지 총 다섯 차례 참여했는데,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활동해주신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자문위원님들이 오시는데도 주어진 주제의 대해서 늘 열띤 토론에 임해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도 배우고 갑니다. 오늘 주로 다뤘던 주제는 지역이나 직능을 떠나 공통적으로 통일교육과 북한 이탈주민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차승주 박사

종교·인권 / 김일한 박사(동국대 북한연구소)



아무리 열심히 토론해서 정책건의를 해도 남북관계가 막혀있다보니 소용없는 건 아닌지 의심들이 많으세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남북관계는 개선해야 하고, 민간분야의 인도적 지원만큼은 열려야 교류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의견을 모으셨어요. 통일문제가 정치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중심의 정보만 전달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분임토의 분위기는 항상 좋아요. 한 가지라도 더 제안하려는 열의를 보이시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최대한 끊지 않고 한말씀이라도 더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시도 예선에 5천600명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시·도예선대회 대회가 지난 11월 6일 부산, 경기, 제주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치러졌다.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통일비전을 공유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5천59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80명이 결선대회에 진출했다. 결선대회는 11월 22일 치러졌으며 12월 22~23일경 MBC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팽팽한 승부를 겨룬 결선대회 현장은 웹진 다음호에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지회 '제1회 한국 통일 말하기 대회' 열어



세계 최초 외국인과 한국인이 참가한 '제1회 한국 통일 말하기 대회'가 11월 8일 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싱가포르지회 주관, 싱가포르 대사관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한국인 통일 말하기 대회와 △2부 외국인 통일 말하기 대회(세계최초)로 치러졌으며 다양한 직종의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그밖에 NUS KPOP 동아리의 댄스 공연 및 한인태권도 연합 시범단의 각종 축하공연도 열렸다. 대상은 '통일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것'을 발표한 이재원(G10)양과, 'Perspectives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를 발표한 Adrian Ho Shi Yong이 각각 차지했다.

경남 양산시 제 8회 평화통일 학생 그림대회 개최

경남 양산시협의회는 10월 14일 양산문화예술회관 광장 일원에서 교육계 관계자들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평화통일 학생 그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남북화해와 협력, 민족공동번영 및 남북간 학생문화교류 발전을 마련하고자 열린 것으로,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북한학생과 우리나라 학생이 함께 달리기 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어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회의 청년위원회 '2014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서울지역회의 청년위원회는 11월 22일(토) '2014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서울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나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들 중 통일세 문제, 그리고 5.24조치 해제에 대해 대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열띤 토론을 통해 들을 수 있었으며, 각 패널들은 관심분야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주시협의회 '통일대박' 슬로건으로 비보이 댄스배틀

전주시협의회는 전북지역회의와 함께 11월 15일 전주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통일은 대박! 2014 JUMPING 1on1 BATTLE'을 개최했다. 전국지역 참가자 150여 명과 자문위원, 전주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비보이댄스배틀은 한류의 중심을 차지하는 다양한 예술 중 하나인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에 대한 지부심을 높이고 전주시민과 대중에게 '통일은 대박'이라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계획된 행사이다. 대회 결과 뽀뽀부분은 이광인 씨가, 왁킹 부문은 이서연(피주) 씨가, 비보이 부문은 이정석(서울) 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지리산 야생화로 만든 압화로 통일이야기 꽃피워요”



전북 구례군협의회는 10월 6일 여성단체, 다문화여성단체,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여성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이 그리는 통일 공감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압화로 평화통일공감그림 그리기, 다문화(북한, 베트남, 중국)음식 만들고 함께 나누기 등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눠 실시됐다. 또한 지역민이 함께하는 군청신관 갤러리에서 평화통일압화를 전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례군의 압화는 지리산야생화 군락지인 구례군에서는 2000년부터 꽃이 핀 야생화를 뿌리까지 채취, 건조하여 눌러서 말린 그림이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경남 지역회의



▲ 충남 청양군협의회



▲ 부산 사하구협의회

경남 지역회의는 11월 2일 대명리조트거제 그랜드볼룸에서 경남지역 성제경 부의장, 여성자문위원 등과 함께 '제16기 경남지역 여성자문위원워크숍'을 가졌다. 충남 청양군협의회는 11월 4일 화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여성시민들과 함께 지역여성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안보강연회 및 통일상식 퀴즈 대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부산 사하구협의회는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지역주민 및 관내 공무원들과 함께 '2014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경북 영주시협의회



▲ 이북5도 지역회의



▲ 경기 광명시협의회

경북 영주시협의회는 11월 5일 새마을회관강당에서 자문위원, 대행기관장, 기관단체장, 주부 및 대학학생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일홍보강연회'를 열었다. 이북5도 지역회의는 11월 6일 이북5도청 중강당에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동길 박사를 초청해 '하나 된 국론으로 통일시대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실시했다. 같은날 경기 광명시협의회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제11기 통일시대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전남 진도군협의회



▲ 전북 장수군협의회

전남 진도군협의회는 11월 10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4년 통일시대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전북 장수군협의회는 12일 장수군평생학습센터에서 대행기관장, 기관단체장, 자문위원 및 여성리더들을 초청해 '2014년 여성 통일공감 강연회'를 열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에는 충북 청주시협의회가 자문위원, 통일지도자 등과 함께 '2014 자문위원 및 통일지도자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충북 청주시협의회

통일미래세대 육성

경남 통영시협의회는 10월 23일 통영교육지원청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통일안보 초중학생 웅변대회'를 열었으며, 경기 시흥시협의회는 31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 청송군협의회는 11월 4일 진보초등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북한과 통일이야기'를 주제로 한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경남 통영시협의회



◀ 경북 청송군협의회



▲ 경기 시흥시협의회

▼ 전남 함평군협의회



이어 5일에는 전남 함평군협의회가 함평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주무대에서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국학생 통일표어 공모전'을 열었다.



경북 예천군협의회 ▶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경북 예천군협의회는 7일 대청중학교 학생 및 교사, 자문위원 등과 함께 판문점 및 DMZ일대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방시찰 통일안보체험'을 가졌으며, 경기 의정부시협의회는 8일 해군 제2함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하는 '가족 통일공감 캠프'를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경북 경산시협의회



◀ 대구 수성구협의회

▼ 광주 광산구협의회



경북 경산시협의회는 10월 24일 경산시민체육공원내 육상경기장에서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경산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 함께하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대구 수성구협의회는 10월 27일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박규하 대구지역부위원장 및 대행기관장, 각 단체·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하는 '제11회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협의회는 29일 송광상당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했으며, 경북 경산시협의회는 30일 북한이탈주민 가족, 자문위원, 경찰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청와대와 박정희전대통령 생가로 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

경북 경산시협의회 ▶



▼ 경남 함양군협의회



경남 함양군협의회는 9일 창원 폴리텍대학 운동장에서 경남 17개 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들과 함께 '경남 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을 열었다.



▲ 대구 달서구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경기 수원시협의회

대구 달서구협의회는 7일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대행기관장,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회'를 개최했다.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11일 제일예식장 커피숍에서 자문위원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돕기 일일차집'을 열었다. 이어 12일 경기 수원시협의회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50명에게 김장김치와 밀반찬 세트 등을 전달했다.

통일문화 활동





▲ 충북 음성군협의회

◀ 제주 제주시협의회

제주 제주시협의회는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민대통합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용횡기원제' 행사를 열었으며, 같은 날 충북 음성군협의회는 제26회 평화통일 염원 음성군민 '가족등반대회'를 개최했다.



▲ 부산 중구협의회



▲ 전남 순천시협의회



▲ 경북 구미시협의회

부산 중구협의회는 2일 북병산 배수지 체육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중구발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22회 중구민 화합 한마당 걷기대회'를 열었고, 전남 순천시협의회는 9일 순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자문위원, 순천 및 타지역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와 더불어 '통일기원캠페인활동'을 실시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는 11일 소백산 자락길에서 자문위원들과 '등반대회'를 실시했다.

지역 봉사활동



강원 양양군협의회는 11월 12일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국가유공자 통일강연 및 위로잔치'를 열었다. 경북 칠곡군협의회도 같은 날 칠곡군 사랑의 집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무료급식봉사'를 실시했다.



▲ 경북 칠곡군협의회



▲ 강원 양양군협의회

통일안보현장 탐방



▲ 전북 익산시협의회



▲ 대전 서구협의회

▼ 경기 오산시협의회



전북 익산시협의회는 10월 20~22일 거제포로수용소와 경남지역 통일안보역사 유적지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워크숍'을 실시했다. 대전 서구협의회는 11월 1일 관내 자생단체회원들과 함께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 안보유적지를 견학했다. 경기 오산시협의회는 11일 협의회 임원, 관내 중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파주 DMZ일대를 견학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중국 칭다오협의회는 11월 15일 백두통일 봉사대에서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중학생과 지도교사, 자문위원들과 함께 조선족양로원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팀은 어르신 방청소는 물론 윗놀이, 노래, 춤, 그림그리기 등을 어르신과 함께 했으며, 위문품도 전달해드렸다.



중국 광저우협의회는 10월 18일 중국 성도에서 '2014년 민주평통광저우협의회 회장배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사천성 및 중경시에 거주하는 유치원, 초·중학생들과 학부모가 참가했으며, 평화통일 묘사, 남북분단 인지, 북녘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등의 주제에 부합한 작품을 출품한 18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



오렌지산디에고협의회는 10월 18일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서 '2014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4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영예의 통일상은 제프리 트레일 중학교의 이종현 군이, 평화상은 노스우드 고등학교 김나영 양이, 민주상은 브레이 고등학교 이초윤 양이 각각 수상했다.

베트남협의회는 10월 31일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제2회 도전 통일골든벨'을 열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황유리(고등부), 오예진(중등부) 학생이, 최우수상은 송명섭(고등), 전정민(고등) 학생이, 우수상은 장찬우(고등), 박세혁(중등), 정주빈(중등)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교실에서는 '2014년 나라사랑 통일문화제도' 함께 진행돼 시, 그림, 논술, UCC 등 다양한 장르의 문예전이 펼쳐졌다.





올 들어 가장 추울 것이란 기상청의 엄포에 잔뜩 겁을 먹고 나선 길, 초입부터 희끗희끗 눈발이 날렸다. 차창에 와 닿기도 전 바람에 밀려나는 눈발을 따라 가면 언제부터인가 대지 위에도 눈꽃이 한 무더기다. 사부작대는 갈대의 꽃술 위로 피어나던 눈꽃이 어느 순간 빗방울이 되더니, 기어코 다시 우박이 되어 내렸다. 민낫의 태양을 만나기 위해 떠난 길이었는데 날씨는 변덕스럽기 그지없다. 그렇게 한참을 오라가락 하던 날씨가 제풀에 지쳤는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구름이 지나간 자리마다 선명한 무지개가 반짝였다.

사실 해는 언제고 뜨고, 지고, 다시 뜬다. 하지만 바로 지금. 찬란한 태양이 몹시도 보고 싶었던 이유는 곳은 날씨에도 선명한 무지개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으리라. 우린 그 무지개를 희망이라 이름 부른다. 너른 대지 위 무지개 끝이 걸려있던 충남 서천의 겨울이야기다.

긴 상념을 묻다, 신성리 갈대밭

피를 나눈 형제였음에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당연시 되는 남북의 군사지역. 키를 훌쩍 넘는 갈대들이 우거진 곳에서 남북한의 병사가 만났다. 한쪽은 지뢰를 밟고 있었고, 다른 쪽은 담배를 물고 있었다. 경계와 긴장, 겁에 질린 표정들과 수많은 상념들이 빠르게 지나는 동안에도 갈대들은 묵묵히 주변을 감싸 안고 있었다. 하필 그 장소가 갈대밭이 아니었다면, 생명을 담보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가을,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신성리갈대밭 ▲▶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도입 부분에 등장했던, 신성리 갈대밭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마주한 금강하구에 펼쳐져 있다. 유명세를 타기 전에는 드라이브 코스나 낚시터로 곧잘 이용됐던 강둑을 따라 걷다 보면 갈대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에 도착한다. 질척일까 싶어 몇 번 발을 굴러보자 유순한 흙이 부드럽게 발길을 맞춘다. 보드라운 흙을 밟고 걷다보니 답을 알 수 없어 제자리걸음만 하던 상념들 역시 찾아든다. 마치 옛 동화 속 임금의 귀를 홍보던 어떤 이처럼 이쯤에서 덧없는 상념들을 갈대밭에 묻기로 한다. 갈대의 젖은 소리 사이로 금강의 물소리가 들린다. 눈을 감아도 상상할 수 있는 풍경, 바람과 갈대 그리고 강물이 만들어 내는 평온함 속에 느리게 계절이 흘러간다.



▲ 공동경비구역 JSA영화 촬영지

◀▲ 흐드러지게 핀 갈대와 갈대밭을 즐기는 동심

아득한 수고와 정성으로 짜낸 전통, 모시전시관

산과 들, 모래사장과 갯벌이 있는 바다까지 두루 품고 있는 서천은 지역적 특색을 갖춘 특산물 역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세모시다. 역사를 깊어보자면 백제시대부터 무려 1500여 년 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산 모시의 고장이 바로 이곳 서천이기 때문이다. 습기가 많고 해풍이 좋은 곳에서 수확한 모시 줄기를 쪼개고, 잇기를 반복해 만드는 한산 모시는 그 결이 가늘고 고와, 세모시라고 부른다.

옛날 여염집을 방물케 하는 한산모시관의 문턱을 넘어서면 방 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이 직접 모시를 삼거나 짜는 모습을 유리문 너머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 시린 바람 속 창 밖에서 서성이는 길손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기엔 정이 많은 고장이라 이내 방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이 이어진다.

모시 수확은 일 년 중 5월과 8월, 10월에 이루어지지만 머리 카락 보다 가는 모시 끝에 침을 묻혀 비벼 잇는, 모시 삼기와 모시 짜기 등은 일 년 내내 쉬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모시를 하도 이로 쪼개다 보니 상처와 피가 마를 날이 없고, 급기야 치아에 홈까지 파이는 작업. 그뿐인가 모시를 잇기 위해 비벼대던 무릎과 손끝도 성할 날이 없다. 오죽하면 '인이 박힌 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그렇게 무려 8번의 수작업을 거쳐야 겨우 한산 세모시 한 필이 완성된다. 아득한 수고와 정성이 깃드는 작업, 이 긴 겨울 내도록 장인은 그렇게 모시를 잇고, 짜며 봄을 기다릴 터였다.



▲ 장인이 모시를 짜고 있는 모습 (원인은 모시)



▲ 한산모시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산모시 전시관

계절의 한적함이 머무는 한옥의 정취, 문헌서원

모시와 더불어 한산 지역의 유명인사(?)인 일명 앓은뱅이 슬, 한산 소곡주 양조장 역시 모시관에서 멀지 않으니 주향을 따라 가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한산이씨 조상을 모신 문헌서원은 서천 지역의 전통역사마을로 잘 조성되어 있다. 우물터와 연못 정자 특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게 지은 한옥은 한번쯤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기분이 들만큼 정겹고 아늑하다. 사실 별이 좋은 봄날에 들렀어도 좋았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계절이기에 느끼는 한적함 역시 놓치면 후회할 일이다.



▲ 서천지역의 전통역사마을 문헌서원

용기란 이름의 간절한 기도, '반공 오열사 위령탑'

해지기 전 마량포구에 도착할 요량이라 급해진 마음에 엉덩이도 털지 못하고 또 다시 길을 나선다. 문헌서원에서 마량포구가 위치한 마량리로 향하는 길목 어디쯤 '반공 오열사 위령탑'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다섯 학도의 숭고한 호국 혼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매년, 9월이면 이곳에서 추모제도 열린다.



전쟁터를 누비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을 흥안의 소년들. 그들이 전쟁터로 나선 이유는 남들보다 겁이 없어서도 영웅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소중한 사람들과 내 고향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싶었으리라.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용기가 돼주었을 것이다. 유독 풍요롭다는 말이 어울리는 서천의 자연을 보고 있다면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다섯학도의 숭고한 호국의 혼을 기리는 반공오열사 위령탑

붉은 꽃송이 태양에 물들다, 마량리 동백나무숲

고백컨대, 귓불이 빨강게 달아오를 만큼 날선 찬바람 속 부러 서천을 찾은 이유는 갈대도 한산의 특산물 때문도 아니었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모두 볼 수 있는 서천의 땅 끝 마을, 마량리가 이번 여행의 목적지였다.

마량리는 바다 방향으로 꼬리처럼 길게 튀어나온 독특한 지형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덕분에 해넘이와 해돋이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바다를 온통 발그레 물들이는 자연경관은 매년 수십 만 명의 인파를 이 소박한 어촌마을로 불러 모을 만큼 빼어나기로 유명하다. 특히 수령 500년 이상의 동백나무가 숲을 이룬,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탁 트인 바다를 앞에 두고 붉은 꽃송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넘이와 해맞이 관람 장소로도 유명하다.



▲ 동백나무 숲에 자리한 '동백정' 과 동백나무

동백나무 숲 사이로 나 있는 들계단을 차분히 오르다 보면 '동백정'이라 이름 붙여진 누각이 보인다. 번덕스러운 날씨에도 혹여나 해넘이를 볼 수 있을까란 기대로 발만 동동 구르기를 수십 분. 끝내 제대로 한번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태양이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리 밍지 않은 이유는 해넘이 전 인근의 흥원항에서 만난 무지개 덕분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 당연해서 유치하게 느껴지는 말, 하지만 당연하기에 우린 기대한다. 내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날들이기를. 그리고 희망한다. 그 기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니들이 회 맛을 알아?, 흥원항 활어 회

항구가 코앞이니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부질없다. 더욱이 서천은 꽃게와 전어, 주꾸미 등 푸짐한 해산물이 무려 지역 특산품인 곳이다. 마량리에서 일몰을 구경할 계획이라면 흥원항으로 향하는 것을 추천한다. 메인 회 한 점시에, 끝없이 나오는 곁들임 반찬은 밥상 위 주객이 전도 될 만큼 신선한 맛을 보장한다. 특히 양념 없이 담백하게 썰낸 각종 생선 요리와 꽃게찜은 푸짐한 지방 인심은 물론 싱싱한 해산물에 대한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 홍원항에 위치한 각종 생선 요리와 꽃게찜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바다 향 가득한 황해도 굴김치밥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즐겨먹는 굴김치밥은 연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굴과 질 좋은 쌀, 김치 그리고 참기름 양념장을 곁들여 먹었는데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소박하며 음식에 기교를 부리거나 화려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요리재료

불린 쌀 한 공기, 굴 30개, 배추김치 1/5포기, 대파 1/3뿌리, 참기름
양념장 : 간장 4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파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요리방법



1 굴은 열은 소금물에 흔들어서 씻는다.



2 배추김치는 국물을 짰 후 썰고 다진 파도 송송 썰어 놓는다.



3 참기름을 두른 솥에 송송 썬 파와 배추김치를 먼저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볶는다.



4 3에 물을 자작하게 넣어 밥을 짓는다.



5 밥물이 거의 없어지면 굴을 넣고 퐁을 들인다.



6 완성된 밥을 섞어서 준비된 양념장과 같이 낸다.



통일레시피 이벤트 당선작
최우수상 조영만

제철 맞은 바다의 우유 '굴'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하루에 50개씩 챙겨먹고,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즐겨 먹었다는 굴은 석굴, 석화, 굴조개 등으로 부른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따르면 굴을 먹으면 강장에 좋고 피부에 활력이 생긴다고 기록돼 있다. 실제로 굴은 인, 아연, 요오드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타우린, 비타민E, 글리코겐의 상승작용으로 혈당강하제 역할도 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갈숨 흡수가 가장 빠른 식품으로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 혈액을 맑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굴은 주로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먹는데 특히 12월부터 2월 사이에 캐낸 굴이 영양소가 풍부하며 맛도 좋다.





당선작 - 박민영

북한식 녹두전을 만들었어요!

근무 중인 학교에서 통일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북한식 녹두전도 만들고 통일동산도 조성해 보았어요.



당선작2 - 전향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손글씨



'우리의 소원 통일'을 손글씨로 적어보았습니다. 손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쓰다보니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늘 애쓰십니다.

나만의 통일 노트

통일과 관련된 평소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쳐주세요~

ex

- 통일 관련 행사 참여 후기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이야기
- 10대~30대 청소년,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 통일안보여행지에서 느낀 점
- 나만의 통일 준비법
- 평소 통일에 대한 생각
-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
- 평소 통일에 대해 궁금했던 점

※ 이 밖에 다양한 주제로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나의 통일 Note에 작성해주세요!



응모기간 2014.12.02 ~ 2014.12.21

응모방법 A4용지 0.5 이상의 분량으로
자유롭게 글을 작성한 후 파일을 첨부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2만원 문화상품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헬진 이벤트 담당자



**파일첨부
응모**

통일의 **별**을 찾아라!

웹진 기사 곳곳에

총 3개의 <통일의 별>이 숨어있어요~

통일의 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찾았다'는 문구가 뜰거예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별의 위치를 찾으셨다면,

아래 비밀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별을 찾으러 G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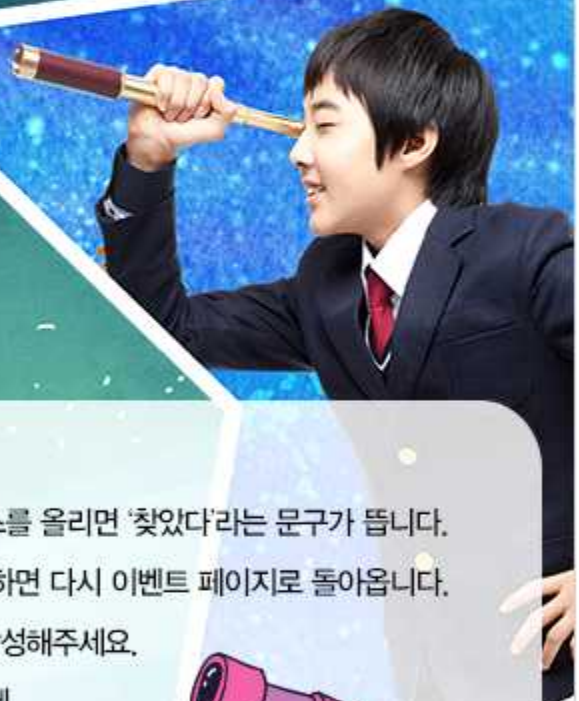
응모기간 2014.12.02 ~ 2014.12.21

- 응모방법**
1. 기사를 읽고 별을 찾아 별에 마우스를 올리면 '찾았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2. 총 3개의 별을 찾은 후, 별을 클릭하면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3. 아래에 비밀댓글로 별의 위치를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20명 **시상내역** 스타벅스 카페라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나도 편집장'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mh104@naver.com	김성훈
2	**u1975@naver.com	전경욱

🎀 '생활 속 통일 단어 찾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spmy@hanmail.net	박민영
2	**vehm84@naver.com	전향미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eyeon0129@nate.com	010 - **** - 2252
2	**ng-jin-@hanmail.net	010 - **** - 6913
3	**flkjwkjf@nate.com	010 - **** - 9425
4	**cuper123@naver.com	010 - **** - 3026
5	**scafe123123@hanmail.net	011 - *** - 7400
6	**ra0076@naver.com	010 - **** - 0026

7	**mk28@hanmail.net	010 - **** - 6265
8	**rahkellybom@gmail.com	010 - **** - 4922
9	**ngningja@hanmail.net	010 - **** - 7802
10	**i.k.0321@gmail.com	010 - **** - 7270
11	**jjang80@nate.com	010 - **** - 4601
12	**rakira74@hanmail.net	010 - **** - 1913
13	**dnjs5617@naver.com	010 - **** - 5617
14	**lokwon@naver.com	010 - **** - 2046
15	**o8037@naver.com	010 - **** - 8077
16	**e6956@hanmail.net	010 - **** - 6161
17	**03621@hanmail.net	010 - **** - 2731
18	**s545@naver.com	010 - **** - 7702
19	**h7133@naver.com	010 - **** - 6681
20	**atement@naver.com	010 - **** - 3845
21	**h0518@hanmail.net	010 - **** - 9396
22	**09@nuacmail.go.kr	010 - **** - 0795
23	**1982ko@naver.com	010 - **** - 9805
24	**elieeun@naver.com	018 - *** - 2630
25	**1eal@naver.com	010 - **** - 0537
26	**nk11@naver.com	010 - **** - 5819
27	**h2293@hanmail.net	010 - **** - 3998
28	**6491@naver.com	010 - **** - 7195
29	**rhaps00@hanmail.net	010 - **** - 3995
30	**vehm84@naver.com	010 - **** - 7091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퀴즈 당첨자

e-행복한통일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박경품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박경품 당첨자

번호	닉네임	이메일주소
1	천년의사랑	**een2297@naver.com
2	대현아	**my0086@naver.com
3	글로리	**didgkssk@naver.com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